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대종사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활발한 재가 불교 실행활동을 전개하여 불교의 새로운 실행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동산반야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불교 1700년사에서 요즘처럼 다종교사회에 걸 맞는 불교 사부대중의 활동이 필요한 때도 드물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속에서 시민대중들과 함께 하는 불교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80년대부터 동산반야회는 종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조계사를 구심점으로 재가실행을 하면서 경전위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사회봉사 및 전법의 정신을 실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불어 해가 갈수록 그 활동이 배가되니 불교실행활동 하고자 하는 모든 불교 단체들의 모범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강조하여 염불결사의 새로운 풍토를 앞장서서 조성하고, 일찍부터 세계의 기아 난민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구호사업에 앞장섬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살도의 실천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산반야회의 불교활동의 저변에는 무진장 원로 대종사의 정신적 지도와 배려에 의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동산반야회의 무궁무진한 불교활동은 동산 30주년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우리 종단의 가풍과 정신을 시민사회에 널리 전하여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불기2556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